



잔 밴 헤메션(Jan van Hemessen, 1500년-1566년경), <치유받은 중풍병자>, 유채, 108x76cm, 내셔널 갤러리, 워싱턴, 미국

성화해설

이 작품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치유 받은 중풍병자가 침낭을 둘러메고 집으로 가는 모습이 전면에 크게 묘사되어 있다. 이 사람이 어깨에 메고 있는 커다란 침낭은 중풍병자였을 때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던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왼쪽에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던 작은 집이 표현되어 있다. 네 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지붕으로부터 예수님께 내려놓는 모습과 예수님의 치유 장면이 작게 묘사되어 있다.

입당송 시편 13(12),6

제1독서 이사 43,18-19,21-22,24ㄷ-25

화답송 시편 41(40),2-3,4-5,13-14(◎5ㄴ)

◎ **주님, 저를 고쳐 주소서. 주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 행복하여라, 가련한 이를 돌보아 주는 이! 불행의 날에 주님께서 그를 구하시리라. 주님께서 그를 보살피고 살려 주시어, 그가 땅에서 복을 받으리라. 그를 원수들의 탐욕에 내주지 않으시리라. ◎
- 주님께서 그를 병상에서 받쳐 주시고, 그가 아플 때 모든 고통을 없애시리라. 저는 아뢰었나이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를 고쳐 주소서. 주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
- 주님께서 제가 온전하도록 붙드시고, 저를 주님 면전에 영원히 세워 주시나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서는 찬미받으소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아멘, 아멘! ◎

제2독서 2코린 1,18-22

복음환호송 루카 4,18

◎ **알렐루야.**

-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도다. ◎

복음 마르 2,1-12

영성체송 시편 9,2-3

주님의 기적들을 낱말이 이야기하오리다. 지극히 높으신 분, 저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 이름에 찬미 노래 바치나이다.

중풍병자와 네 명의 벗(십자가와 믿음)



장광재 요아킴 신부 | 상설고해사목부

예전에 있던 본당에는 거울로 예수님의 형상을 만든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소성당에 있었기에 평일미사와 어린이 미사 때에는 언제나 그 십자가를 보며 전례를 했습니다. 혼자 속으로 ‘누가 이런 작품을 만들었을까? 거울을 조각조각 내서 예수님을 묘사하다니?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이 지난 어느 날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하!’ 라는 감탄사를 내뱉을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어렵듯이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을 어느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어도 작은 거울 조각 안에 자신의 모습이 담겨져 있게 됩니다. 어린이든 노인이든 착한 사람이건 죄인이건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 보게 만들어 줍니다. 슬픔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다시 자신의 슬픔을 보게 되며 고통스런 사람도, 증오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 다시 자신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고통과 슬픔, 증오를 예수님의 십자가상 제사로 재해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작품을 만든 작가의 의도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중풍병자와 네 명의 친구를 더 유심히 보게 됩니다. 들것에 들린 중풍병자와 그를 예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 용기를 갖고 찾아온 친구들. 그들은 친구의 쾌유를 위해 예수님께 갔지만 군중들로 인해 꼭 찬 집에 들어설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정과 정성 그리고 친구에 대한 우정은 그들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곧 뒤를 돌아 한적한 곳에 환자를 놓고 지붕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지붕이 벗겨질 때마다 집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은 온통 지붕 위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지붕이 모두 벗겨지자 들것에 놓인 중풍병자가 네 명의 도움으로 예수님 앞으로 내려 보내졌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에게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시며 그들의 믿음과 용기에 칭찬으로 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섞여 있던 율법학자들의 의심에 찬 마음

을 알아채시고는 다시 한번 당신이 누구 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중풍병자는 이 한마디 말씀에 힘을 얻고 그곳을 떠납니다. 친구들과 함께.

복음이 보여주는 중풍병자에게서 우리는 무슨 의미를 발견해야 할까요? 그리고 네 명의 친구들은 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병자에게서 죄와 십자가를 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려 할 때 나의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금 있으니 나의 죄스런 마음이 혐오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나중에 좀 더 열심한 마음이 들면 그때가야 하지 않을까?’ 라는 속삭임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이런 세상의 모든 근심걱정들로 병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중풍병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하느님 앞에 나서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데에는 치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의탁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날 받아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한 네 명의 친구가 보여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열의가 바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지녀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신다



맹경순 베로니카 | 평화방송 아나운서 위원

얼마 전 몇 년 만에 S가 찾아왔다. 같은 직장에서 일했는데 갑자기 그가 사직을 했다. 그렇게 만류했지만 고집을 버리지 않았다. 연락이 없어 나도 화가 나서 마음에서 지워버렸는데 갑자기 전화를 하고 우리 집에 오겠다는 것이었다. 40대 초반, 어찌어찌 이혼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참담한 일들도 모두 들었다. 지금 자기가 벌이고 있는 조그만 점포에서 춥고 불편한 잠을 잔다고 했다. 다들 어주고 저녁을 먹이고 말했다. “추운데 따뜻한 물에서 목욕이나 하고 가려무나.” 이번엔 순한 얼굴로 말을 들었다.

내가 어렵게 살던 시절, 겨울이 너무 싫었다. 위풍이 심해서 너무 추웠던 집에서 겨울에 목욕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한해 겨울엔 내 가난이 너무 화가 나고 분해서 아기를 데리고 우이동 호텔에 가서 하루 자고 마음껏 더운물에 들어가 놀고 집에 온 적이 있었다. 그 뒤로 겨울이 무섭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됐을 때도 나는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에게 괜히 ‘목욕하고 가라’고 때를 썼다. 그들을 위해서라기보다 힘든 시절의 나를 그렇게 위로하고 싶어하는 아니었을까? 돌아간 뒤에 문자가 왔다. ‘대모님 덕분에 몸과 맘이 따뜻해졌어요. 진작 뵈었어야 했는데 마음먹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사는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길가에 돈가스 집이 있다. 문앞에 이런 패가 걸려 있었다. ‘돈가스가 드시고 싶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으신 분은 그냥 들어오십시오. 저희가

대접하겠습니다.’ 내게는 돈가스를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있는데도 그것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래... 가난한 사람은 늘 설렁탕이나 제육백반, 칼국수를 좋아하겠거니...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겠구나. 때론 바삭바삭하니 튀겨서 얼개미 위에 기름 빠지라고 얹어 나오는 돈가스가 먹고 싶기도 할 것이다. 양배추 채와 고소한 땅콩소스가 먹고 싶겠구나. 그런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겠구나... 그런데 이런 글을 써서 문에 붙여놓은 그 주인은 어떤 사람일까? 그 글이 푹 떨어지게 푹푹하지 않은 것도 매우 흐뭇했다. ‘그냥 들어오십시오, 저희가 대접하겠습니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남북전쟁이 끝나고 스칼렛과 멜라니는 마당에 술을 걸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낙오병들을 먹이고 씻긴다. 누구에게든 후하고 넉넉한 멜라니에게 스칼렛이 낭비가 많다고 불평하자 멜라니는 말한다. 북부 어딘가에서도 애슐리(두 여인이 사랑하는)에게 먹을 것을 주는 북부의 여인이 있겠지요.’

내가 좋아하는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게 된다. 영긴 젓과 우유와 살이 부드럽고 좋은 송아지 고기를 대접한다. 열왕기 17장 사렘타 마을의 과부도 엘리야를 대접해서 평생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대박을 만난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신다. 늘 이 부분에 목이 맨다. 식탁내 옆자리... 누군가를 앉히자.

생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배우기 8

생명에 대한 공격과 인권 존중은 양립할 수 없다

“인권이란 개념을 발견한 역사적 과정은 오늘날에 와서 놀라운 자기 모순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지닌 침해할 수 없는 권리들이 엄숙하게 선포되고 생명의 가치가 공적으로 인정되는 바로 그 시대에 생명의 권리 자체가, 특히 존재의 가장 중대한 순간에, 곧 탄생과 죽음의 순간에 부정되거나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 18항).”

1948년 유엔은 세계 인권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생명권을 비롯하여 차별 없이 인간의 불가침의 권리를

장엄하게 선언한 나라들이 낙태, 안락사, 불임시술 등 생명에 대한 공격을 개인적 자유의 정당한 표현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조장하고 법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지극히 모순되는 일입니다. “이러한 선언들과, 약하고 곤경에 놓인 사람, 또는 노인, 또는 갓 임신된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행위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공격들은... 인권에 관한 문화 전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생명의 복음 18항).”

생명을 택하여라(신명 30,19)

어느덧 봄입니다. 지난 겨우내 모든 생장을 멈춘 듯 잔뜩 움츠렸던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되면 어김없이 땅이 녹고, 물이 흐르고, 새순이 돋아 꽃이 피어납니다. 해마다 보는 모습이지만 늘 그 놀라운 생명력에 감탄하게 됩니다.

자연의 생명력이 주는 신비도 이렇진대 하물며 인간생명이야 어떠하겠습니까? 인간은 그를 창조하신 분, 참되고 올바른 신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므로, 이 세상에 하느님을 증거하는 존재이고 그분 영광의 흔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생명은 다른 살아있는 피조물에게 주신 생명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생명의 절대적인 가치와 존엄함은 배아이든, 태아이든, 어린이든, 성인이든,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든 모두 동등합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하거나 죽일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생명은 하느님의 축복이자 선물이며, 하느님만이 그 유일한 주인입니다.



생명수호 체험수기 공모전 시상식

생명위원회는 오늘날 인간배아 파괴, 낙태, 자살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생명경시풍조가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생명존중'이라는 교회의 기본가치를 수호하고, 기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2005년 10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생명위원회는 생명운동본부와 의료연구본부 등 2개 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명운동본부에서는 생명관련 교회문

헌익기 운동, 제대혈기증운동, 생명수호체험수기 공모전을 비롯해 올바른 생명윤리 교육을 위한 참생명학교와 학술세미나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생명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연구본부에서는 가톨릭 생명윤리에 입각한 세포치료와 연구를 위해 첨단 세포생산시설을 갖추고 난치병 치료를 위한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명의날 기념미사

많은 분들이 생명운동에 동참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생명운동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생명을 갖고 있으며, 생명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본능입니다. 따라서 우리 일상에서도 충분히 실천이 가능합니다. 생명위원회나 교구에서 마련한 생명교육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비롯해 혼인한 부부가 새로운 생명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가까운 이웃의 고민을 들어주고 진심으로 염려해주는 것 그리고 생명수호를 위해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는 기도도 훌륭한 생명운동이 됩니다.

“너희나 너희 후손이 잘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여라. 그것이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다”(신명 30,19-20 공동번역). 참 생명을 선택함으로써 그 신비와 충만한 은총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소식

2월25일(수)은 사순 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 로 이 날 교우들은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켜야 합니다.

'사순시기'에서 사순은 본래 '40일'이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기도하며 재를 지킨 데서 유래합니다. 이 기간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회개와 보속으로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여 다가올 부활 축제를 준비합니다.

올해는 2월25일(재의 수요일)부터 4월9일(주님 만찬 성목요일 미사) 전까지 예수 부활 대축일을 준비하는 사순 시기를 지냅니다. 이 시기에 교우들은 기도와 자선, 금식과 금육을 하며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 ▶ **금식 · 금육:** 재의 수요일(2월25일), 성 금요일(4월10일)
금식 대상: 만 18세~60세(한 끼 금식)
- ▶ **금육:** 매주 금요일 / 금육 대상: 만 14세부터

천주교 서울대교구 직원 채용 공고

서울대교구 전산정보실 직원(프로그래머) 모집

- 대상: 교우, 전문대졸 이상 또는 관련분야 유 경험자
- 갖추어야 할 기술: 기본 언어 구사능력(ASP, C#), Data Base(MS-SQL) / 문의: 2269-0419(3월7일까지 접수)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기술서 / E-mail: ao@seoul.catholic.or.kr
-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 서울대교구 사무처
- 서류전형 후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및 실기시험
- 자세한사항은 굿뉴스(www.catholic.or.kr) 배너 확인

대전교구 보좌 주교 임명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2월10일, 대전교구 김종수(아우구스티노) 신부를 대전교구 보좌주교로 임명했습니다. 1989년 사제수품 후 논산 부창동성당 보좌를 거쳐 교황청 성서대학에서 수학 후 해미성당 주임, 대전 가톨릭대학교 교수, 교리신학원 원장을 거쳐 대전 가톨릭대 총장으로 재임해 왔습니다.

서울대교구 사무실 이전 안내

서울대교구는 가톨릭회관에 있던 교구 내 부서를 사목센터(중구 명동 2가 1-5)로 이전합니다(전화번호 동일).

부서	위치	이전일
문화홍보국	사목센터 3층 우측	2월18일(수)
생명위원회	사목센터 3층 좌측	2월19일(목)
상설고해사목부	사목센터 3층 좌측	2월20일(금)
성소국	사목센터 3층 좌측	2월23일(월)

가톨릭 인터넷 굿뉴스 '소리주보' 서비스 제공

가톨릭 인터넷 굿뉴스(www.catholic.or.kr)에서는 주보를 읽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소리주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주보를 다시 보거나 이번 주 주보를 미리 볼 수 있으며, 서울대교구 및 산하단체 전화번호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구청 기관과 단체 알림

제7차 생명관련 교회문헌읽기 모임

- 문헌명: 교황청 신앙교리성 훈령 「생명의 선물」(1987), 「인간의 존엄」(2008) / 회비 없음
- 때: 3월3일-24일 매주(화) 16시-17시30분
- 곳: 명동 사목센터 3층 / www.forlife.or.kr
- 접수 및 문의: 727-2350 생명위원회

사랑 더하기 희망 나누기 이웃사랑 나눔 바자회

- 사랑더하기(사랑+) 바자회(스코너 패션 학생 운동회): 2월25일(수) 10시-19시, 명동성당 별관
- 희망나누기(희망+) 바자회(비바라 여성 플랫폼즈): 3월15일(일) 10시-19시, 명동성당 별관
- 문의: 727-2254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 때, 곳: 3월6일(금) 오후 2시, 가톨릭회관 3층 대강당 / 문의: 727-2123, 4 성소국

사목국 성서사목부 '성서못자리' 나눔터강좌개강

- 대상: 일반 교우 / 문의: 775-5789 성서사목부
 - 때: 3월2일부터 매주(월) 15주간
 - 곳: 명동성당 내 교육관 / 당일접수
 - 오전반: 10시30분-12시30분, 오후반: 19시-21시
 - 회비: 5만원(교재포함), 청년 못자리: 4만 원
- | | | |
|----------|---------------------|-------------|
| 나눔터강좌 | 코린토전서 | 정수용 신부(오전반) |
| 청년못자리 | 사도바오로와 바오로사간 | 신희준 신부(오후반) |
| 정기강좌(입문) | 허영엽(오전반) · 인완식(오후반) | 신부 |

민족화해위원회 후원회 미사

- 때, 곳: 2월27일(금) 10시30분, 민족화해위원회 사무실(가톨릭회관 205호) / 727-2414, 5

가톨릭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과정 1급 수강생 모집

- 때: 3월2일-5월11일 매주(월·수·금) 총 240시간
- 곳: 가톨릭회관 4층(회비: 65만원) / 762-2225 노인복지위원회(선착순 40명 전화접수)

2009 남성구역 봉사자 피정(서서울지역)

- 때, 곳: 3월8일(일) 10시-16시, 명동성당 쏘스트홀 / 회비: 1인 1만 원(2월25일까지 접수)
- 문의: 727-2062, 3 사목국 일반교육부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	3월1일 14시	평창동 수련소	011-9852-9817
서울 포교성 베네딕도 수녀회	3월1일 14시	돈암동 본원	010-6259-6364
성령 선교 수녀회	3월1일 14시-17시	명륜동 본원	010-5730-6322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3월1일 14시-17시	정릉본원(샘물모임)	016-332-2885
예수회	3월7일, 21일 16시	예수회 본부	010-8728-1803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파티미의성모 프란치스코 수녀회	3월1일 14시	수지 본원	011-9176-1212
천주교 서울 국제 선교회	2월28일 14시	사당5동성당	749-4596
한국순교복자수녀회(수원관구)	3월1일 14시	청파동 총원	010-9409-0920
한국 외방 선교회	3월1일 13시	한국외방선교회본원	010-4555-7526
한국 외방 선교 수녀회	3월1일 14시-17시	보문동 수녀원	011-9319-1690

알림

모임

여성연합회 월례회(문의:778-7543)
 · "생명과 윤리법"(미사: 하유실 신부, 강사: 맹광호 교수)
 · 때, 곳: 2월24일(화) 10시, 명동성당 문화관 소성당
청주교구 성령봉사회 2박3일 무료 치유 피정
 · 때, 곳: 3월6일(금)~8일(일), 청주교구 성령봉사회 관(초정) / 043)213-9103, 010-4400-1344(숙식 제공)
삼성산 사랑의 성령봉사회 철야 기도
 · 때, 곳: 매주(화) 22시30분~4시,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문의: 874-6346, 011-277-0317 삼성산 사랑의 성령봉사회(강륜은 매주 바뀜)
복음화학교 월례 기도모임(새천년복음화사도회)
 · 내용: 미사(이준성 신부), 기도 및 신앙체험, 말씀(정치우 회장) / 문의: 753-8765, 776-2514
 · 때, 곳: 3월1일(일) 오후 2시, 가톨릭회관 7층
하느님의 종 최영업 신부와 124위 시복시성을 위한 철야 기도회
 · 기도: 김진방 회장(미사: 이승용 · 류한영 신부)
 · 때: 3월7일·21일(토) 21시30분~4시(22시30분 미사)
 · 곳: 배티성지(주최) 강당(성사, 면담) / 043)533-5710

사순시기 40일 철야기도회
 · 때, 곳: 2월25일(제의 수요일부터)~4월6일, 말씀의 선교 수도회(전철 2호선 아현역 2번 출구 마을버스 05번 종점) / 문의: 312-0662, 010-3249-0896(전 세실리아), 010-5706-1959(조 스텔라) 말씀의 선교 수도회 성심회
가정선교회 27차 가정 영성 성숙 1일 피정
 · 대상: 가정치유와 성화를 원하는 누구나(회비없음)
 · 강사: 이창진 신부(말씀, 내적치유, 미사)·이현주 회장
 · 때: 3월4일(수) 오전 10시~오후 4시30분
 · 곳: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미사준비, 김밥제공)
 · 문의: 777-1773, 010-5674-8511, 011-9135-7815

향심기도 일반인 월 피정 및 직장인 월 피정
 · 대상: 누구나 / 지도: 이승구 신부(회비: 1만5천원)
 · 곳: 상지 피정의 집(주최: 사목국 향심기도회)
 · 문의: 010-8674-1105(www.hyangsim.com)

직장인 월 피정	3월1일(일) 오전 9시30분~오후 4시
일반인 월 피정	3월2일(월) 오전 9시30분~오후 4시

서울대교구 치유기도회
 · 때, 곳: 매주(수) 12시30분~16시30분, 성령쇄신봉사회관(전철 2호선 신림역 5번출구, 5528-5535-6512 버스환승 후 신림8동 사무소 하차) / 867-7900 성령쇄신봉사회

2월25일(수)	강제: 나는 구원 받았네 강사: 조기연 회장 / 은혜로운 치유기도회
3월4일(수)	강제: 예수님의 수난과 고통의 의미 강사: 조영대 신부(보성성당 주임) / 사순특강

교육

2009년 1학기 역삼동성당 강남가톨릭문화원 가톨릭상담심리사 양성교육(문의: 070-8235-1617)
 · 대상: 가톨릭상담에 관심있는 교우 및 한국가톨릭상담심리학회 가톨릭상담심리사 자격증 취득 희망자 / 회비: 한 학기 70만원(과목: 17만5천원)
 · 과목: 가톨릭상담윤리, 가톨릭교의, 정신건강, 심리검사, 학습심리 / 홈페이지(www.kccpa.org) 참조
 · 곳: 역삼동성당(강사: 박현민 신부 외 상담심리 전문가) / 개강: 3월3일부터 매주(화·목) 주 2회
이나시오 영성연구소(예수회) 3월 개강(문의: 717-3869)

기도와 마르코 복음서	(월) 오전	박종구 신부
상처와 함께하는 영신수련 12주간	(화) 오후	권희섭 신부
연극을 통한 복음대상	(목) 오후	김애련 강사

· 1일 침묵피정: 매주(금) 10시~16시(연구소 후 원회원 무료) / 무료 월 피정: 2월27일(금), 열정과 회심(박종구 신부, 서강대 이나시오성당)
성체조배 기초 교육(지속적인 성체조배회)
 · 때: 3월10일~4월14일 매주(화) 14시~16시 / 773-3030
 · 곳: 가톨릭 회관 3층 / 강사: 장광재·정의철·김명섭·성지호·김덕근 신부(회비: 4만원)

3월10일·17일	성체조배 입문, 성체조배와 미사
3월24일	성체조배의 필요성과 어려움
3월31일	성체조배와 묵상기도
4월7일·14일	성체조배 방법 및 삶

새감성서 개강(성문서)

· 때: 3월3일(화) 10시·4일(수) 14시 / 010-2955-2227
 · 곳: 인보성체수도회(주최) / 강사: 김보나 수녀
어머니 영성교실(성녀 엘리사벳 앤 씨튼과 함께하는)
 · 때, 곳: 3월~12월 매월 첫째(월) 14시~16시, 씨튼피정의 집(회비: 5만원) / 3672-6136 사랑의 씨튼 수녀회
성모다산대회 차 예결교육
 · 때, 곳: 3월3일(화) 10시~4일(수) 14시, 한국 순교복자 수녀회(전철 4호선 숙대입구역 10번 출구)
 · 문의: 707-5518 낮에만(한국 순교복자 수녀회)
나자렛 성가회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여성부 자격인정)
 · 대상: 전문대졸 이상 / 회비: 30만원(교재비 포함)
 · 때: 3월7일~5월16일 매주(토) 오전 9시~오후 6시
 · 곳: 나자렛 성가회 교육원(종로구 평창동)
 · 문의: 379-4803(계좌: 신한은행 100-022-727249)

표현예술상담사 3급 자격과정 15기 모집
 · 다양한 치유적 예술매체와 상담의 통합적 내용을 다루는 여성리더 양성과정
 · 때: 3월9일~4월1일 매주(월·수) 14시~18시(4주 과정) / 문의: 742-9471, 3 달타다콤센터

천주교 예수노상전교회 전교대학 15기 개강
 · 대상: 천교배우고, 하고 싶은 신자 누구나(인원: 50명)
 · 강사: 이관희, 정광균, 윤정화 회장, 김정남 신부
 · 때: 3월13일~5월8일 매주(금) 오후 1시~3시
 · 곳: 고척동성당(회비: 3만원) / 010-4206-9101
영여성서나눔(ENTS) 봄 22기 강좌 '코린토 II'
 · 대상: 교우(영어 강의와 나눔) / 회비: 4만원
 · 강사: Anne 수녀(마리아의 전교사 프란치스코 수녀회)
 · 때, 곳: 3월5일~6월18일 매주(목) 19시20분, 명동성당 별관 / 011-828-4750, 016-201-4718(교재 제공)
 · 개강 당일 접수(http://cafe.naver.com/loveents)

성서 영적 여정 프로그램(Spiritual Journey in with the Bible)
 · 렉시오디나나 콘티누아를 통해 하느님과 나를 알기, 주님을 향한 여정(4월11일까지 접수) / 824-4363, 5
 · 교육내용: 자아인식, 기도 입문(몸기도 체득), 말씀을 통한 영적여정의 기초개념 습득(선착순 60명)
 · 때: 4월23일부터 매주(목) 10시~12시30분 · 4월24일부터 매주(금) 10시~12시30분 / 회비: 사무실에 문의
 · 곳: 가톨릭 성서모임(주최) 본부(혹석동 성모교육원)

2009년 베네딕도 성서학교 개강
 · 때: 10시~12시20분(15주간) / www.benedict.or.kr
 · 문의: 920-9667 툇팅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회비: 7만원)
 1학년 토세오경 3월6일(금) 2학년 예언서 3월5일(목)
 3학년 마르코복음 3월4일(수) 4학년 바오로서간 3월3일(화)

2009년 1학기 토착화신학당(한국그리스도 사상 연구소)
 · 주제: "몸과 마음의 영성" / 문의: 925-3991
 · 때: 3월11일~6월10일 매주(수) 오후 2시~4시
 · 곳: 한국 그리스도 사상 연구소(서울센터)
 · 회비: 한 학기 10만원(수도자: 5만원)

3월11일(개강)	그리스도 영성의 어제와 오늘	심상태
3월18일~5월9일	몸의 영성	신정숙 수녀
5월13일~6월3일	마음의 영성	곽승룡 신부
6월10일(종강)	그리스도 영성의 어제와 오늘	심상태

제 21기 목요신학강좌 수강생 모집
 · 때, 곳: 3월19일부터 매주(목) 19시40분~21시30분(총 32강좌), 서강대 K관 301호 / 705-8163 CLC 사무처
 3월19일~5월7일 성서와 계시,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 등
 5월14일~21일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의 하느님과 인간관 등
 5월28일~7월9일 역사의 예수와 그리스도, 성령과 삼위일체 등
 8월20일~9월17일 교회의 역사와 새로운 사명, 한국천주교회사 등
 9월24일~11월12일 성서란 무엇인가, 기도와 삶 등
 11월19일~29일 소공동체와 복음화, 죽음의 의미 등
 강사: 김현태·송용민·홍승모·박준영 신부 / 조광·노길명 교수외

모집

가톨릭교리신학원 1학기 영성·교양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 문의: 747-8501~5(http://ci.catholic.ac.kr) 교무과

영성교육과정	교양교육과정
현대의 영성가들	동양종교들의 생령사상
3월3일~5월26일	3월4일~6월3일
매주(화)14시~15시40분	매주(수)14시~15시40분
회비: 2만원	회비: 15만원

잠실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과 노인의 홈클리닉 직업활동 참여자 모집(문의: 423-7806, 7)

· 대상: 경증 장애인, 55세 이상 고령자 / 3월~11월(주)화
 · 내용: 홈클리닉(집구류 청소), 직업교육활동, 자아 탐색프로그램, 진목활동 / 담당: 사회복지사 이효주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성음악 아카데미 학생 모집
 · 대상: 본당 음악봉사자 및 교회음악에 관심 있는 분(내용: 오르간·피아노·성악 실기 개 인레슨) / 문의: 393-2213~5(공휴일 휴무)

한마음 공동체 나눔의 집 봉사자 모집
 · 서울역 인근의 쫓방, 행려인, 노숙인에게 무료 급식(매일) 하는 가톨릭 사회복지회 소속 단체 임(주일)과 평일에 주방과 배식을 담당할 남녀 자원 봉사자를 모집함 / 3789-5425 한마음나눔(지도: 조창수 신부)

미사

성소 후원회 월례 미사(문의:010-3199-4133)
 · 때, 곳: 2월28일(토) 오전 10시, 봉천동성당
평양교구 신우회 미사
 · 대상: 신우회 회원 및 관심 있는 교우 / 753-0815
 · 때, 곳: 2월25일(수) 10시30분, 명동성당 내 소성당

영어로 배우는 성경 공부와 영어 미사
 · 때, 곳: 3월1일(일) 15시~17시30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 당일접수(www.oblates.or.kr)
 · 문의: 010-2778-7145 오블라뚜 선교 수도회
오기선 요셉 장학회 월례미사
 · 대상: 모든 교우 / 2299-2296, 011-202-5145
 · 집전: 황인국 몬시뇰, 오웅진 신부 외 사제단
 · 때, 곳: 2월26일(목) 오후 3시, 명동성당 별관

절두산 순교성지 연영회 기도·미사
 · 지향: 선종한 사제들, 불쌍한 영혼들, 조상들, 선종한 부모와 형제 자매들 / 010-7534-1866
 · 때: 2월27일(금) 12시(연도)·13시(미사)
가정회복을 위한 기도와 미사
 · 집전: 유영덕 신부(기도·박용혜) / 011-245-0121
 · 때: 2월23일(월) 13시30분~17시 / 문의: 312-0662
 · 곳: 말씀의 선교 수도회(주최) / 전철 2호선 아현역 2번 출구에서 05번 마을버스 종점

안내

살레시오 고민 전화상담
 · 자녀 및 가정 내 갈등, 고민 들어드립니다(공휴일 휴무)
 · 매주(월·금) 10시~16시 / 841-8443 살레시오 수녀회
(국내 입양전문) 입양상담 및 미혼모 상담
 · 문의: 764-4741~3(www.성가정입양원)
 · 주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삼성산 무료 가정방문 호스피스 봉사
 · 대상: 6개월 이내 임종 예상 모든 환자
 · 지도: 이경식 박사, 송관섭 신부
 · 문의: 887-2311 삼성산 호스피스 봉사회(주최)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 맞춤식 자녀교육법
 · 자녀 성격에 따른 맞춤식 부모학습지도 훈련
 · 때: 3월4일(수) 10시~13시, 3월6일(금) 14시~15시(매주 1회, 6주) / 3675-1338 가톨릭 여성의전화
한국가톨릭전례무용단 창작무용극 맹골공연
 · 원장: 박유진 신부(주최: 한국가톨릭문화원)
 · 때, 곳: 2월25일(수) 19시30분, 26일(목) 15시·19시30분, 27일(금) 15시·19시30분, 국립국악원예악당
 · 문의 및 예매: 1577-3217 한국가톨릭문화원 사무국

혜화동성당 혼인미사 예약안내
 · 하느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82주년을 맞이한 혜화동 '백동성당'은 혜화동 로터리에 위치하고 혼인미사에 적합한 장소를 두루 갖추어 / 764-0221, 2
 · 혼인미사: 매주(금) 17시(신설), (토) 12시, 13시30분
 · 준비: 혼인장소 의뢰서(선착순) / 예약금: 30만원

명동성당 3월 예비신자 교리학교
 · 환영식: 3월1일(일) 오후 2시, 명동성당 별관

금요일	오후 7시30분	교육관 205호	774-1784
주일만	오전 10시		

· 명동성당 성지미사: (월·토) 오전 10시, 지하성당
※교회단체 '알림' 신청
 · 전화: 727-2033 / 팩스: 753-6006
 · E-mail: jubo@seoul.catholic.or.kr

문화마당



여성과 그리스도교 1

메리 T. 말로온 지음 | 이정원 · 박경선 옮김 | 바오로딸 | 344쪽 | 1만3천 원

남성 중심의 역사 기술 아래 감추어져 있던 여성 그리스도인의 역할과 활동, 그 영성사를 그리스도교 초세기에서 천 년까지 살펴본다. 여성 또한 하나님 나라 건설의 주역이라는 정체성을 지니게 한다.



그리스도와의 만남, 미사

조학균 지음 | 성바오로 | 328쪽 | 1만5천 원

전례의 정의와 역사, 전례 주년, 미사 전례의 기원과 의미 등의 내용을 담은 전례 안내서이다. 어렵지 않은 문장으로 전례의 기본적인 주제를 체계적으로 소개해 전례의 배경과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은총론, 그 고귀한 선물에 관하여

박준양 지음 | 생활성서 | 256쪽 | 8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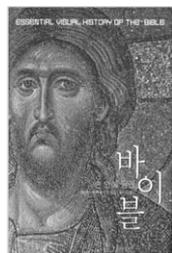
‘은총’에 대한 신학적 내용과 함께 신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자의 체험과 일상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삶을 비유로 들어 설명했다. ‘은총’은 어려운 학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 그 자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사랑할 땐 별이 되고(개정판)

이해인 지음 | 샐터 | 300쪽 | 1만1천 원 | 구입문의: 763-8965

작고 소박한 것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이해인 수녀의 글 모음집이다. 다양한 형식의 글 ‘사랑할 땐 별이 되고’ (기도일기), ‘수녀언니’ (수필), ‘친구에게’ (편지), ‘다시 시작하는 기쁨으로’ (기도시)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손 안에 담긴 바이블

크리스티안 케블리 외 지음 | 김지원 옮김 | 수막새 | 512쪽 | 2만3천 원 | 구입문의: 3142-7332

말씀을 위주로 한 ‘성경’을 읽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 성경의 역사적 배경 설명과 함께 이를 실감 나게 표현한 등장인물이나 당시대와 관련된 1,500여 장의 그림과 사진을 담았다.



노자의 그리스도교적 이해

김승혜 지음 | 영성생활 | 364쪽 | 1만5천 원 | 구입문의: 762-1995

김승혜 수녀가 2001년~2008년 동안 ‘영성생활’에 도덕경 전체를 다섯 장씩 나누어 연재한 것을 묶은 책이다. 노자의 도덕경을 통해 하늘을 날 수 있는 자유와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주고, 공평한 생태공동체를 이루도록 도와준다.



당신 빛으로 삼아 주소서

데이빗 L. 플레밍 S.J. 지음 | 김용운 · 손어진 · 정재현 옮김 | 이나시오 영성연구소 | 168쪽 | 7천 원 | 구입문의: 717-38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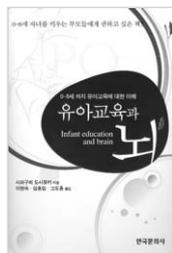
‘성 이나시오의 영신수련’ 책자를 모든 지도자와 피정자가 좀 더 쉽게 자신의 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영신수련을 통해 주님의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돌아보면 매일이 축복입니다

구정모 지음 | 부키 | 280쪽 | 1만5백 원 | 구입문의: 325-0846

천주교 잡지 ‘들숨날숨’과 ‘착한이웃’에 연재했던 글을 모은 책이다. 평생 청빈, 정결, 순명을 지키고 살 것을 서원하고 수도원에 들어온 지 23년째를 맞는 구정모 신부가 우리 삶의 여정에 띄우는 성찰의 메시지이다.



유아교육과 뇌

사와구치 도시유키 지음 | 이현숙 · 심홍임 · 고도홍 옮김 | 한국문화사 | 245쪽 | 1만4천 원 | 구입문의: 464-7708

아이들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면 잠재력은 개발되지 않는다. 영유아를 자녀로 둔 부모들이 아이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용서의 기술

딕 티비츠 지음 | 한미영 옮김 | 알마 | 296쪽 | 1만2천 원

심리학자인 저자가 용서 프로젝트를 통해 용서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질병을 완하시키며, 새 삶을 여는 열쇠라는 진실을 증명한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용서의 방법들을 통해 용서가 우리 삶에 어떤 혜택을 주는지 알려준다. / 구입문의: 031)955-2643

성 요셉 · 성 막시밀리아노 콜베 신부 ·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와 함께 기도하는 한 시간

다니엘 콘 지음 | 장말희 옮김 | 성바오로 | 40쪽 | 3천5백 원



예수님의 양부이신 성 요셉,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사형수를 대신하여 목숨을 내놓았던 성 막시밀리아노 콜베 신부, 세상 만물과 소통하며 가난을 몸소 살았던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과 영성을 보여 주는 책이다. 각 성인들과 함께 시작 기도를 바치며 마음을 준비하고, 그들의 영적 생애와 여러 가지 묵상을 읽으며 내 안의 소리에 귀 기울여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께 다가가도록 도와준다.

박로사 피아노 독주회 '나의 어머니를 위한 노래'

· 입장권: 전석 2만 원 / 문의: 581-5404(www.iyoungum.com)

섬세한 음악적 해석력을 지닌 연주자로, 열정을 지닌 지도자로 활동하는 피아니스트 박로사의 독주회가 3월1일(일) 오후 7시30분, 금호아트홀에서 있다. 1부에서는 어린시절 어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리고, 2부에서는 폭풍우 같은 삶을 견뎌내신 어머니를 회상하고 애정과 사랑을 보내준 어머니께 위로를 안겨 드린다.

공연 당일 '본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주보' 지참시 50% 할인한다 (주보 미지참시 차액 지불 / 주보 1부로 4인까지 할인가능).